

平生教育的 觀點에서 본 學校 施設의 複合化

Mixed-Use of School Facilities in Aspect of Life long Education

崔 云 實*

Choi, Woon-Sil

1. 평생교육 시대의 학교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학교시설 복합화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뉴 밀레니엄형 변신”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른바 지식 기반사회의 도래를 통한 “新 지식관”의 형성과 새로운 의미의 “新 지식인 양성” 그리고 첨단 정보공학을 전제로 한 “교육의 스피드 정보화 증후군”들이 그러하다. 지식 기반 사회가 “아는 것이 힘인 사회”라면 이때의 앎이란 “단순하고 획일적인 고정관념화된 평균적 앎”이 아닌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인, 복합적 앎”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교육도 더 이상 “고정관념형의 전통적 닫힌 교육”이 아닌 “탈 고정관념형의 새로운 열린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 받고 있다. 이른바 “뉴 밀레니엄형 사회”를 주도할 신인재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뉴밀레니엄형 열린 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오랫동안 닫힌 교육의 틀을 지배해 왔던 “죽은 지식”의 시대가 가고 열린 교육 패러다임의 “살아있는 지식”이 자리매김하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기 한국 교육개혁의 틀로 제시되었던 “열린 평생 학습사회의 실현” 또한 “.....교육 개념의 열림, 교육 대상의 열림, 교육

담당자의 열림, 교육기관간의 열림, 교육방법의 열림, 교육내용의 열림...”을 전제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자유로이 배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학습사회”를 추구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동향을 명료하게 반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생학습의 사회에서, 가정 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간의 수평적 통합과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수직적 통합이 전제되는 평생교육의 시대에 이제 우리의 학교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더 이상 학교만이 교육의 유일무이한 독점기관이 될 수 없다면 이제 학교는 어떻게 기존의 틀을 벗고 새로운 “복합형 평생교육형 학교”로 변신할 것인가?

평생교육의 시대의 변화된 교육과 학습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있는 다음의 글은 학교가 어떻게 “복합적인 미래형 평생교육 학교 모델”로 변신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교육적 함의를 던져준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닫힌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으로서의 열린 학교교육”은 학습자의 개념에서 부터 학습시기, 학습방식, 학습주체 등에 이르기까지 의미가 다르다. 학습의 개념부터 다르다. 전통적인 학교교육은 정형화되고 제도화된, 철저하게 학교화된, 학습자가 아닌 가르치는 교사가 주체가 되는, 타율적이고도 외생적이며, 수직적인 ‘훈육적 성격’으로 교육을 공급하는 의미가 강했다. 일방적으로 준비된 ‘교육내용’이 외부적 교육변수 예컨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나 취직 등의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성격이 강했다. 평생교육에서의 학교교육은 학습자

* 아주대학교 교육학 교수

가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된다. 학습참여의 결정에서 부터 학습내용과 학습방법의 결정 그리고 학습성과 평가과정에 학습자가 피교육자로서 배제되고 통제되며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의 '계(計), 실(實), 평(評)' 전 과정에 의미있는 학습 주체로 참여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행하게 된다. '학습자'의 개념 또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이 아닌 '성인학습자'로 확대되어 이들이 또 하나의 교육 메인 스트림 대상 집단으로 부상되게 된다. 아동기나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교육이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학습의 장(場) 또한 학교만이 아니라 '기리의 교육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정과 사회 전역으로 확대된다. 각종 사회시설과 문화시설, 기업체, 정부와 군대, 병원과 노조등의 이른바 '비전통적 교육기관인 토털 인스티튜트'들도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학습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학교출석식 직면학습(直面學習)방식에서 참여학습과 현장체험 학습, 시뮬레이션 학습, 프로젝트 학습, 컴퓨터나 위성통신, TV 방송매체, 통신등의 멀티미디어를 통한 원격학습, 가상학습 등이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다중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의 학습 관심을 지닌 학습자들의 동아리나 동조회, 학습싸클 등의 "자기주도적 학습공동체"가 결성되어 다원적 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새로운 학습 전형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된 교육과 학습의 새로운 개념 모델은 "학교 시설의 복합화"라는 논제를 접합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제공하게 된다. "정형화된 기성의 패턴으로 일관되어 왔던 기존의 전통적 학교시설 모델"에서 "비전통적 패턴인 또 하나의 다양화되고 개성화된, 입체화되고, 복합화된 학교 시설 모델"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 받게 된다. 기능이 새롭게 변화하고 다양화 복합화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마땅히 학교시설 또한 다양화되고 복합화된 시설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개념적 논의의 전제가 있다. 자칫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본 학교시설의 복합화"라는 주제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협의로 해석할 경우 혼동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평생교육의 개념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친 교육의 총체적 이념'이라는 광의적 해석이 아닌 "단순한 학교 밖의 또는 학교외의 사회교육"과 동의어로 해석할 경우 "왜 평생교육 이념을 고려한 학교시설의 복합화"가 논의 되어야 하는 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이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새로운 교육계의 통합형 다기능형 복합형 교육 이념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이념이다. 또한 학교는 이러한 점에서 분명 평생교육의 요체 부문으로 기능해야 하는 핵심적

교육기관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평생교육의 이념을 반영한 학교시설의 복합화와 다기능화가 논의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안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本考에서는 "평생교육과 학교시설"의 접목 가능성과 그 향방에 관한 중점적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평생교육체제하의 새로운 복합형 학교교육 모델

평생교육체제하에서 학교교육은 평생교육의 이념이 지향하는 "교육대상의 전체성과 교육개념의 탈정형성, 교육내용과 교육접근방식 및 운영의 탄력성과 다양성, 교육시기의 항상성, 교육체제의 개방성과 통합성" 이념에 비추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학교는 평생교육의 핵심 구성체로서 "평생교육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하며 융통성 있는, 타 교육부문과 연계된 "다원형의 복합화 체제"로 재구조화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학교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편협하며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고, 단절적이며 불균형적이라는 문제 지적과 관련하여 반대급부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변화 모델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변화되어야 할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의 巨匠인 데이브(Dave)는 "다선형 복합화 학교 모델"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최운실외,1990 재인용).

"학교교육은 평생교육의 한 부분이지 결코 홀로 떨어져 있는 실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학교교육 단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보다는 가급적 각 단계간의 이동이 허용되어야 하며 전체 학교교육체제가 개방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향후 학교교육제도는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단일의 단선형 교육제도보다 그 선형을 다양화하는 다선형 교육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야간제 학교,통신제 학교, 주말제 학교, 개방형의 열린 학교, 계절제 학교, 미니학교, 이동학교 등의 다양한 학교 유형이 가능할 것이다. 학교교육체제에 비형식적 요소가 도입되어 학교교육과 학교의 교육이 일체화되고 연계를 이루어야 하며 교육비경감을 가능케 하는 통합적 교육체제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평생교육형 학교는

일차적으로 학교가 지닌 인적자원으로서의 교사와 물적 자원으로서의 학교 시설 및 기자재, 즉 교실, 운동장, 도서관, 체육관, 실험실, 컴퓨터 및 각종 시청각 기자재 등을 사회교육 기관과 일반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상호 활용되도록 해야 하며, 반대 급부적으로 각종 사회교육 기관이나 지역사회의 가용 인적·물적 교육자원들도 학교교육을 위해 개방되고 유용하게 활용되는 “전 사회의 교육자원 활용 및 연계망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 받게 된다. 또한 학교가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교육 제반 자원과 여건을 변화하여 다양화와 복합화를 주도하는 선도 시설이 되어야 함을 시사 받게 된다. 학교가 이와 같이 평생교육형 복합 교육모델로 변신해야 하며, 학생들의 정규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뿐 아니라,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확대된 기능을 수행해야 함은 최근 교육부가 발간한 “1998 평생교육백서”의 “초·중등학교의 평생교육적 기능 수행과 변화 동향”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글속에서도 명료하게 발견되고 있다(교육부, 1998).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1)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 교직원들의 지식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2) 취약 아동의 감소로 발생하는 유희시설과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학교의 사회화 기틀을 마련하고 3) 지역사회주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신뢰속에 평생교육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초·중등학교에서는 성인교실 부모교실 학부모 취미반, 주민교실, 지역사회학교등의 학부모 및 주민 대상 교육과 인근 도서관 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 체육관 박물관 등과의 지역사회연계형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논의된 “학교 평생교육”의 의의와 특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글 또한 평생교육적 이념에 터한 학교교육의 변화 모델과 기능 탐색에 명료한 도움을 주고 있다(홍중선, 1998:10-11).

첫째, 학교는 평생교육체제하에서 누구에게나 교육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공공교육기관으로서 국민 전체 또는 지역주민 전체가 주인이므로 이들 주인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책무성을 지닌다. 최근 학교교육에 대한 책무성 요구는 정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교육욕구충족 및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둘째, 학교는 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기능 수행에 있어 사회 여타 기관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셋째, 학교는 풍부한 교육 가용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유리한 여건은 보다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넷째, 어느 지역이든 학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편의 지점에 위치해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학교의 학생, 동생, 학부모, 납세자 등 어떤 형태로는 학교와 관련을 맺고 있어 쉽게 친근감을 느끼며 접근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학교는 지역주민들을 교육의 장으로 끌어 들이고 이들을 평생교육체제로 쉽게 유인할 수 있는 유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학교와 교육자에 대한 일반인의 높은 신뢰와 기대는 보다 효과적인 평생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즉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은 다른 어떤 유형의 평생교육보다 강력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논의들에서 발견되고 있듯이 학교는 이제 분명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구심체이자 학습문화센터”로서 다양한 학교 중심형 평생교육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센터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특히 최근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폭되고 있으며 일반 평생교육시설에 비해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선호도가 특히 높은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3. 학교교육 시설의 평생교육적 복합화 전제와 고려 요건들

평생교육 이념형 복합 학교 시설 모델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학교중심형 평생교육”의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요구를 간략히 개진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 진단 없이 평생교육적 학교 시설 복합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1 초·중등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보면 수요자인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

을 위해 학교 실정에 맞게 교양 프로그램, 취미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필요성, 자녀교육과 부모의 역할, 산행대회, 레크레이션, 체력단련, 좋은 학교 만들기와 주민참여, 올바른 자녀학습지도, 화목한 가정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기초 및 교양, 취미 및 기술, 건강,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구분될 수 있다(홍중선,1998:14;한국교육신문사,1998:344-350).

〈표 1〉 “초중등학교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영역	프로그램 내용
기초 및 교양 프로그램	육아교육, 자녀교육(사랑의 대화, 자녀 행동수정 기법, 진로지도), 부모역할교육, 가족대화, 부부생활, 가정생활, 가족캠프, 가족오락, 아버지교실, 노후생활, 예절생활, 부업갖기, 일반상식, 생활법률, 외국어, 한문, 컴퓨터, 문학, 독서, 동화구연, 교과목강좌(교육과정의 이해 및 수학 과학교실)
취미 및 기술 프로그램	꽃꽂이, 제빵실습, 요리실습, 생활공예(등공예, 박공예, 목공예, 한지그림 공예), 동양매듭, 수예, 나염, 바둑, 장기, 서예, 사진, 용변, 회화(동양화, 서양화), 조각, 기악(기타, 바이올린, 크로마하프), 고전음악, 가요 및 민요교실, 메이크업, 실내장식, 합창, 분재, 지점도, 종이접기, 전통악기연주(사물놀이, 거문고, 가야금, 단소, 대금), 문화유적지 탐방, 연극 및 영화감상, 낚시
건강 프로그램	리듬체조, 외국무용, 한국무용, 수영,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축구, 농구, 탁구, 골프, 자전거 하이킹, 태권도, 볼링, 에어로빅, 검도, 요가, 단전호흡, 지압법, 수지침, 뜸, 응급처치, 의학상식, 건강생활, 강의, 지역사회 체육대회, 각종게임 및 레크레이션
봉사활동 프로그램	불우이웃돕기, 보육원 및 양로원 방문, 지역환자 돌보기, 결식아동 돌보기(도시락 싸주기), 바자회, 마을경로잔치, 자연보호활동, 청소 캠페인, 우리농산물 아용하기, 알뜰구판장 열기(공동구매 및 판매), 마을뚝길 가꾸기, 학교도서관 운영봉사, 교통지도, 용의검사, 급식실 봉사

그밖에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학교의 인적 자원과 시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되거나 학교당국이 직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직, 운영하는 것으로서 학교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학교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연계는 학교교육에서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지역사회에 대한 학교 교육의 시설 및 설비 개방, 그리고 지역 민간단체와 학교교육과의 연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초중등학교에 “평생교육 시범학교”들이 다수 지정·운영되면서 학교의 특성을 살린 “학교에서의 평생교육”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 평생교육형 학교시설의 복합화 필요를 절감하게 한다. 현재 이들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적 프로그램은 주로 체육관, 컴퓨터실 등 유휴교실과 방과후 보통교실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 수요가 증대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학부모 및 지역민 대상 교육과 학생 대상의 특별 교육과정 실시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가 필요함을 시사 받게 된다.

3.2 학교 평생교육을 위한 확보 시설 관련 기준

학교에서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전제로서 학교 시설의 변화와 복합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면 이를 위한 모델 탐색 작업의 일환으로 학교 평생교육 시설 관련 법적 조항과 관련 제안 시설 확보 근거들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있는 “평생교육법 시안”의 평생교육 시설 관련 조항을 보면(교육부,1998 :519) 다음과 같이 평생교육적 관점에서의 학교교육 기능의 변화와 관련된 시설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들 내용들은 학교가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평생교육의 구심체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떠한 시설의 복합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를 제공해 준다.

〈표 2〉 “평생교육법 시안”의 평생교육 및 “학교 평생교육” 시설 관련 조항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평생교육 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과 학원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장 평생교육 시설 제20조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1)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 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 시설

1)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 실시자가 당해 학교의 도서관, 박물관, 기타 시설을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하여야 한다.
 3)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한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 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①회의 또는 집회에 필요한 시설 ②자료 보관 및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 ③학습에 필요한 시설 ④체육·오락시설 ⑤방송·통신시설 ⑥보건·위생시설 ⑦숙박시설 ⑧사무실 기타 사회교육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이 제시되어 있다.

〈표 3〉 일반 및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구 분	시설·설비기준
1. 학습시설	가.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49.5제곱미터이상)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2. 자료실	가.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나. 관리실과 접용할 수 있음
3. 관리실	가. 관리실은 사회교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1실 이상
4. 기타	가.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이와 함께 학교 평생교육 시설 확보 모델 탐색에 참조가 될 수 있는 복합적인 평생교육센터들의 시설 설비 확보안을 보면(김란수, 최운실외, 1994; 홍영란외, 1997), 종합사회교육시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4〉 복합 사회교육시설로서의 “지역사회교육원” 시설 확보 모델

시설구분	최소 확보 기준
대형 강의실	100명 수용규모 2개실 이상
세미나실	30명 수용규모 3개실 이상
연수실	50명 수용규모 2개실 이상
강당	300명 수용규모 1실
회의실	20명 수용규모 2개실 이상
시청각실	30명 수용규모 1개실 이상
사무실	원장실, 부원장실, 부장실(10), 팀별 부서실(10), 자문위원실사무국, 지역주민교육상담센터(3)
실험, 실습, 실기실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험, 실습, 실기실
교육정보자료실	도서 1,000권이상, 전문분야정기간행물 10종이상을 소장하고 50명이상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정 공간의 확보
휴게실	직원용, 교·강사용, 학습자용, 기타 휴게실등
전산실	1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
합숙시설	2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식당	2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
기타 시설	양호실, 숙직실, 시설관리실, 운동장 및 주차장 화장실 등 계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적정 시설

1998년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수행된 “중앙 및 지역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연구”(남정걸, 최운실, 주성민외, 1998)에서는 종합적인 평생교육의 구심체 네트워크 기관으로서의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모델 시안”에서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1)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최신의 정보DB 기능 2)평생교육기관 및 학습자간의 평생교육적 네트워크 강화 기능 3)평생교육 담당자들의 전문 연수 기능 4)평생교육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기능 5) 평생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 제공 기능 6) 학습상담 기능 및 정보 제공

서비스 기능 7)시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기능 등의 복합 기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시설 설비 확보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p>인포메이션 센터(Information Center) 평생학습관에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시설로 Information Center를 설치하여 평생교육사가 평생학습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시설 사용 및, 학습 상담에 대해서 기초적인 정보들을 안내하도록 한다.</p> <p>로비(Lobby) 넓은 로비는 1층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한층의 면적을 거의 1/3을 차지하며 지역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료의 게시나 간단한 다과정도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구비한다.</p> <p>어린이 놀이방 어린이 놀이방은 외부의 놀이터와 비슷하게 평생학습관을 찾는 지역주민의 자녀들이 부모의 간섭없이 놀 수 있고 또래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한다.</p> <p>상담실 (A/B) 상담실은 지역주민과 평생교육사가 서로의 고민을 듣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장소로서 Information Center에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을 상담실에서 평생교육사가 자세하게 듣고, 개별적이거나 혹은 집단적인 학습 상담과 일반 교육 관련 생활 상담 활동을 하게 된다.</p> <p>프로그램 준비실 (평생교육사) 평생학습관에는 일반 행정실과 평생교육사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다. 한 평생학습관에 10명 정도의 평생교육사가 확보 될 경우 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특히 평생학습관의 강사와 지역문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상담전문가로서 평생교육사의 개별 연구공간을 확보한다.</p> <p>다목적실 학습 서클룸보다 크지만 대형 홀보다는 작은 규모의 방으로 이 공간의 기능은 강좌가 진행되는 장소, 또는 작은 규모의 세미나, 혹은 아이들의 공부방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이 주간과 야간에 모두 개방되어 사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성인 및 다양한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시청각 기자재가 마련되어 있어서 영화 감상 뿐만 아니라, 정보공유의 장이 될 수 있다.</p> <p>컴퓨터 실습실 및 정보 검색실 평생학습관을 찾는 지역주민이 전산망을 이용하여 모든 정보망과 접속할 수 있을 시설로 일정한 시간동안 평생학습관이 제공하는 컴퓨터 교습 시간을 제외한다면 정보 검색실로서 컴퓨터 실습실이 개방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p> <p>방송제작실 방송제작실은 지역민들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거나 또는 음악연습실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p> <p>다목적 대형 홀 단상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첨단 시청각 기제가 놓여있는 대형 다목적 홀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찾는 지역주민들의 숫자가 많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연인원 100-150명 정도의 인원이 강연회, 공청회 등을 열고 참석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p> <p>서클룸 (A,B,C) 평생학습관에서는 지역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으로서 학습 서클을 지원한다. 학습 서클은 각자의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운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만, 특별히 만남의 장소를 구할 수 없는 서클들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3개 이상의 학습서클룸을 확보한다. 이 방은 회의진행을 위해 격리된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며, 관련 필요 기자재 구비가 요구된다.</p>
--

4. “학교교육 시설의 평생교육적 복합화 모델” 탐색을 위한 제언

평생교육적 관점에서의 학교 시설 복합화는 상기에서 다각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매우 필요한 과제인 동시에, 향후 뉴 밀레니엄 시대의 학교교육 변화 패러다임과 맞물려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될 것임을 예견하게 된다. 이때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학교 시설의 복합화 모델을 탐색할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인 교육개념의 탈정형성과 광역성, 교육프로그램과 접근 방식의 다양성, 다차원적 커뮤니케이션 특성, 교육기관과 프로그램간의 유기적 연계성, 교류호환성, 교육시기의 항상성, 교육대상의 다양성과 이질성, 광역성” 등의 속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기본 전제가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향후 학교 시설의 복합화 모델을 탐색함에 있어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몇가지 제언을 다음과 같이 부가하고자 한다.

첫째, 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학교 시설은 “학생 중심의 정시제(定時制) 학교 시설에서 모든 지역민 대상의 연중 전일제(全日制) 평생교육시설”로 확대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문화센터”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주중 주간에만 활용되는 제한적인 단한 교육시설”에서 “연중 주야간 주중 주말 언제든지 열려있는 활용 가능한 살아있는 열린 교육시설”로 개방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시설은 학생뿐 아니라 일반 지역 주민과 학부모를 위해서도 유용한 평생교육자원으로 확대 개방 활용되어야 한다. 더 이상 주중의 정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에만 활용되는 학교시설로 그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학습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여 그들의 평생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는 평생시설로 기능을 복합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시

설은 야간 개방과 주말 개방 그리고 모든 가용 교육자원의 일반 지역민 대상 개방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둘째, 평생교육적 기능을 전담할 별도의 성인 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시설들이 추가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적 학교 시설 복합화 모델에는 학생 뿐 아니라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 대상인 성인학습자 즉, 학부모와 일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과 그들의 학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생용 교육시설들을 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함께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특별히 성인학습자들을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고려될 수 있는 시설로는 기존의 학생 대상 정규 교육과정 시설에 포함되기 어려운 시설인 “성인학습자들의 소규모 토론 학습과 세미나 워킹을 위한 별도의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또는 도서관 및 정보자료실 멀티미디어 교육센터등의 다각적 기능을 하는 “학습자원센터(Learning Resource Center)”의 설치 운영등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성인 대상의 평생학습에는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에 비해 토론이나 세미나, 시뮬레이션, 현장 체험학습등의 다양한 교육방식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성인학습자 학습편의시설로서 학습상담실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내실, 휴게실과 만남의 장인 로비, 회의실 인포메이션 센터 그리고 성인 학습자 특히 “학부모들이 교육에 참여할 동안 아이들을 맡아 모육 지도할 탁아 및 보육 센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 시설 자원의 평생교육적 복합화를 위해서는 학교 시설과 지역사회 교육문화 시설간의 유기적 “교육자원의 입체적 탄력적 활용 네트워크”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보유 시설자원과 지역사회 교육문화 시설 자원을 목록화한 시설 자원 리스트 DB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들 교육자원이 상호간에 어느 정도나 활용되고 있는 가에 대한 실태 파악, 이들

자원의 복합적 적정 활용 가능성과 활용에 대한 수요 진단, 구체적인 세부 활용 계획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초작업을 통해 학교의 시설인 강당이나 체육관이나 운동장, 특별 교육실, 도서관, 멀티미디어 영상 정보실, 방송실, 회의실은 물론 일반 교실 또한 필요시 야간이나 방과후 주말과 동하게 방학중에 일반인들의 평생학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역 사회의 교육문화자원인 박물관과 공공 도서관, 문화원, 문화학교, 예술문화회관, 전시관, 미술관 동식물원, 스포츠 센터, 사회체육시설, 사회복지관, 구민회관, 시민회관, 마을회관, 종교시설등이 학교 학생 대상의 특별활동 프로그램과 열린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활용되도록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 시설을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복합적이고 탄력적인 교육시설”로 기존의 활용을 획기적으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막힌 교육시설에서 “열린 공간의 오픈 스페이스화와 다목적 스페이스화”를 추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의 공간 시설을 열 개 이상의 시설로 활용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시설의 기능적 고정성”을 탈피하고 “시설의 재구조화와 변화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탄력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평생교육의 “일목적 다경험 일경험 다목적 원리”와도 통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다목적화와 오픈 스페이스화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가 평생교육적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 복합화 모델에 학교의 평생교육을 전담할 기획팀과 프로그램 운영지원팀,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팀, 회원 및 수강생 관리팀, 홍보팀의 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조직과 팀들이 일할 수 있는 행정 사무 공간과 이들의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시설 및 설비를 확보하는 과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교시설의 내곽 시설뿐 아니라 외곽 시설인 야외 교육장과 운동장, 캠퍼스 주변의 산과 산책로, 야외 체험학습장등도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적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평생교육은 “거리의 교육학”이라 할 만큼 모든 공간과 시간 자원을 입체적 학습자원화하는 일에 주력한다. 따라서 이들 학교의 외곽시설과 자연환경 그리고 주변 교육환경 모두가 “총체적인 환경친화적 평생교육의 열려진 장(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란수, 최운실외(1994), 『종합사회교육원 설치 운영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부 중앙교육심의회.
- 김중서·주성민(1990), 『지역사회학교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김종영, 류호섭외 공역(1995), 『학교 건축의 변혁: 열린 학교의 설계, 계획』. 도서출판 국제.
- 교육부(1998), 『평생교육백서』
- 김득영(1998). “군포시 평생학습 추진체제의 구축과정”, 『글로벌시대 한국사회교육학의 대응』, 한국사회교육학회, 1998
- 남정걸, 최운실, 주성민외(1998), 『지역사회교육활성화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부 중앙교육심의회.
- 류호섭(1994), “일본의 초중등학교 시설의 발달 동향”, 『서울교육』 1994 여름호.
- 박영숙(1994), “교수 학습 방법 개선에 따른 학교 시설의 대응”, 『교육연구』. 1994 6월호.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교육연구사
- 박재윤(1994),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학교시설 정책”. 교육부, 『교육월보』. 1994.5.
- 이희수(1998). “평생학습 정보체제 구축 및 보급 방안”,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열린 교육체제 방안 구상』, 한국교육개발원, 미출간 원고
- 최운실(1990). 『한국의 평생교육』. 교학사.
- 최운실외(1997). 『여성 사회교육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정무 제2장관실.

- 한국교육신문(1998). 『한국 교육연감 1998』 .
-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6), 『문화의집 모델 및 운영방안에 관한 외국사례조사연구』 .
- 홍영란외(1997), 『사회교육기관 평가모델 및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홍종선(1998), 『학교 평생교육 요구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國立社會教育研修所(1996). 生涯學習의構想と實踐。東京：日常出版。
- 湯上二郎外(1989). 現代公民館全書. 東京：東京書籍.
- Epstein, J. L. and Others.(1997).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Thousand Oaks, CA : orwinPress.UNESCO(1997),*Declaration of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Hamburg*.
- OECD(1995), *Redefining the Place to Learn: Programme on Educational Building*.
- Rich, P. and Mattox, B.(1986). *101 Activities For Building More Effective School -Community Involvement*. Rockville, MD : The Home and School Institute, Inc..